

사회

성추행·폭행·엘리베이터 봉변 ... 광주 도심 치안 허술

새벽길 부녀자 상대 범죄 공포

방법 CCTV 설치 저조 ... 강력범죄 노출

새벽 집나서기가 무섭다. 새벽녘 도심 한 복판에서 여성이 성추행이나 폭행당하기 일쑤고 엘리베이터 안에서 여성을 끌고가려는 사건도 터졌다. 그러나 폐쇄회로(CC)-TV 등 범죄를 감시하고 예방하기 위한 대비책은 광주가 전국 꼴찌여서 시민들은 불안하다. 지난 26일 새벽 4시40분께 남구 진월동 모 빌라 앞에서 20대로 추정되는 괴한이 A(여·23)씨의 얼굴과 몸을 수차례 폭행한 뒤 인근 야산으로 달아났다. A씨는 경찰에서 "교회에 가려고

집을 나섰는데, 광주대 쪽에서 따라온 남자가 갑자기 뒤에서 손목을 잡고 끌고가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용의자는 A씨가 놀라서 소리를 지르자 갑자기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빌라 인근 상점에 설치된 CCTV 화면에 찍힌 안경과 빨간색 반바지 차림을 한 용의자가 찍힌 것을 확인하고 검거에 나섰다. 앞서 지난 19일 새벽 2시20분께에는 남구 진월동 모 아파트 309동 옆 놀이터에서 산책 중이던 B(여·35)씨가 괴한으로부터 성추행과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B씨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를 벌이고 있지만, 사건 현장 인근에 CCTV가 설치되지 않아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 광주남부경찰은 최근 일주일새 발생한 '새벽 시간대 여성 폭행 사건'의 용의자들을 추적 중이다. 경찰은 두 사건의 용의자가 동일범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CCTV 화면 등을 토대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지난 22일에는 새벽 3시께 서구 삼무동 모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30~40대로 추정되는 남성이 C(여·33)씨를 끌고가려다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다. 용의자는 당시 C씨의 손목을 붙잡고 4층 복도 쪽으로 끌고 갔지만, C씨가 비명소리를 듣고 아파트 주민들이 밖으로 나오자 그대로 달아났다. /김호기기자 kimho@kwangju.co.kr

장흥~ 제주 쾌속선 갈등 고조

완도어민들 법원에 운항중지 가처분신청 선사측 "7월 2일부터 계획대로 운항 추진"

다음달 2일부터 장흥군 노력도~제주 상산포항을 오가는 쾌속선 운항을 둘러싸고 선사와 완도지역 어민들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27일 완도군에 따르면 장흥~제주간 쾌속선 운항을 앞두고 완도 급일·약산·금당 지역 어민 등이 최근 광주지법에 '해상운송사업 면허중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어민들은 지난 3월 여수항만청이 (주)장흥해운의 장흥~제주간 쾌속선 운항을 조건부로 허가해준 것은 "완도 어민들의 삶의 터전"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어민들은 "쾌속선 운항 중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 외에도 쾌속선 항로 인근에 미역·다시마 양식 면허를 표시한 길이 6m·폭 2.5m의 통나무로 만든 각매 50척을 배치했다. 또 (주)장흥해운의 운항허가가 철회될 때까지 가능한 방법을 총동원해 반대운동을 펴겠다고 밝혀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완도군과 일부 어민들은 쾌속선이

완도군 해역 15km 구간을 통과하는 과정에 김, 미역, 다시마 등의 양식장을 둘러싸고 선사와 완도지역 어민들의 피해는 물론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며 항로개설을 반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선사 측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쾌속선을 완도군 청산도 앞 바다까지 출항시켜 시험 운항을 하는 등 쾌속선 운항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다. (주)장흥해운 관계자는 "이번에 운항할 쾌속선은 일반 선박보다 너울성 파도가 낮게 일어나는 워터 제트형"이라며 "예정 항로를 지날 때는 7~8노트로 저속 항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장흥~제주간 쾌속선 분쟁과 관련 최근 박준영 전남지사가 이명흠 장흥군수와 만나 "바다는 길(항로)이 우선이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중식 완도군수에게 "관광 활성화 등을 위해 새로운 항로개설"이 필요하다는 전남도의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부취재본부=정은조기자 ejchung@ /중부취재본부=김용기기자 kykim@



여수서 154t급 도선 좌초

지난 26일 밤 11시께 여수시 묘도동 묘도 선착장에서 북동쪽으로 150m가량 떨어진 해상에서 154t급 도선 M호가 좌초됐다. 그러나 도선에 타고 있던 선장 김모(60)씨와 선원 등 6명은 출동한 해경에 30분만에 모두 구조됐다. 여수 월내 선착장과 묘도를 운항하는 이 배는 방향조정 기계장치가 고장나 수심이 낮은 곳으로 잘못 운항한 것으로 여수해경은 보고 있다. /동부취재본부=박성태기자 mihang@



인명구조 훈련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수상안전 강습요원들이 지난 26일 광주 염주수영장에서 여름철 물놀이 사고 예방을 위한 인명구조 훈련을 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대불산단 제지공장서 베트남인 근로자 사망

지난 26일 새벽 0시5분께 영암군 삼호읍 대불산업단지 내 제지공장에서 베트남인 근로자 W(25)씨가 분쇄기 덮개에 머리가 끼어 숨졌다. 사고 당시 W씨는 목재분쇄 작업을 하던 중 분쇄기가 갑자기 작동하지 않아 덮개를 열고 기계 내부를 점검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W씨가 분쇄기 덮개를 고정하는 안전핀을 찾지 않은 채 기계를 살펴보다 벌을 당한 것이 아닌가 보고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 중이다. /중부취재본부=이상휴기자 ish@

농기계 수리점 폭발사고 광양서 4명 부상

27일 오전 11시35분께 광양시 광양읍 목성리 노모(78)씨의 D농기계 수리점에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수리점 안에 있던 노씨가 얼굴에 2도 화상을 입었으며 길 건너편 가게에서 물건을 사고 있던 양모(여·68)씨 등 3명이 수리점에서 뿜겨나간 유리 파편에 맞아 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에서 치료중이다. /동부취재본부=박영진기자 pyj4079@

또 대낮 7세 여아 성폭행 사건

서울서 ... 30대 남성 추적

학교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김수철 사건이 일어난 지 20일도 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서울 시내에서 초등학생 성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범인은 대낮에 피해 여아의 집으로 아이를 데려가 성폭행할 정도로 대담

함을 보였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27일 초등학교 1학년 A(7)양을 성폭행한 혐의(13세미만성년자강간)로 30대 초 반으로 보이는 한 남성을 쫓고 있다고 밝혔다. 이 남성은 26일 낮 12시30분께 동대문구의 한 주택가 골목길에서 놀고 있는 A양을 비어있던 A양의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남성은 A양에게 "집에서 같이 놀자"며 친근하게 접근했고 당시 A양의 집은 부모가 직장에 나가 있어서 비어 있는 상태였다. 다행히 A양은 수습을 받아야 하는 등의 큰 신체적 피해를 당하지는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사건 당일인 26일은 학교 수업이 없는 토요일로 A양은 집 앞에서 혼자 놀고 있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A양의 부모는 베트남인으로 A양은 베트남에서 출생했고 한국에는 수년 전에 들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연습스

“오현섭 시장 지시로 1억 보관·전달했다”

구속前 여수시 국장 진술

'여수시 야간 경관조명사업 관련 뇌물수수 사건'과 관련해 오현섭 여수시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진술이 나와 오 시장의 대응이 주목된다. 28일 여수경찰에 따르면 야간 경관조명사업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전 여수시 김모(여·59) 국장에 대한 조사 결과 "지난해 5월 서울 출장 중 나이트피어 간부 K씨로부터 1억원을 받아 오 시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오 시장의 친인척으로 알려진 주모(67)씨에게 이 돈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김 전 국장은 경찰에서 "당시 오 시장으로부터 '돈을 보관하고 있으라'는 지시를 받고 집에 보관하고 있었는데, 주씨가 찾아와 1억원을 가져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지난 21일부터 3일간 연

가를 낸 후 연락이 끊겨 체포영장이 발부된 오 시장이 경찰에 자진 출두하거나 검거될 경우 김 전 국장의 진술에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오 시장은 그동안 6·2지방선거 방송토론회 등 각종 공식석상에서 김 전 국장의 뇌물수수 사건과 자신은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수차례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주씨는 지난 4월 경찰청이 야간경관사업 관련 수사에 본격 착수하자 중국으로 출국했다. 경찰은 주씨가 지난 해 12월 여수시의회 의원들을 상대로 금품을 살포한 혐의를 포착해 체포영장을 신청하고 인터넷에 공조를 요청한 상태다. 여수시의회 일부 의원들은 최근 경찰 조사에서 주씨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대가성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부취재본부=박성태기자 mihang@

축구 족다고~ 행인 화풀이 폭행 ○...월드컵 우루과이전에서 대한민국의 대표팀이 패배하자 엉뚱한 사람에게 화풀이를 한 20대 취객이 경찰서행. ○...광주동부경찰에 따르면 양모(25)씨는 27일 새벽 5시20분께 광주시 동구 지산동 J맨션 앞길에서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하던 김모(18)군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 ○...친구 3명과 한국대표팀을 응원하다가 우루과이에게 패하자 이날 새벽 내내 술자리를 가졌던 양씨는 경찰에서 "한국이 안타깝게 져 화가 났다. 김군을 때린 건 미안하다"며 뒤늦게 후회.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Hanbit Gosihakwon (한빛고시학원). The ad features a large image of the building and text in Korean. Key text includes: '개강 7월 1일' (Classes start July 1st), '압도적 1위 시설 합격을 강사진' (Overwhelming 1st place, qualified faculty), '7급 공무원 여름방학 대개강' (7th grade civil servant summer vacation mass classes), '5년 연속 호남지역 최다 합격자 및 수석 합격자 배출' (5 years in a row, most qualified students and top scorer in the region), '광주지역 수강생 80% 이상 석권' (80% of students in Gwangju area are top scorers), '최강의 강사진과 초대형 공무원 시험 전문학원 & 전국 최고의 명문학원으로 거듭나겠습니다.' (With the strongest faculty and a massive public exam specialist academy, we will become a national top-tier famous academy.), '타원과 비교를 거부합니다.' (We refuse to be compared to Taewon.), '한빛고시학원' (Hanbit Gosihakwon), and '(광주 전남대 북구청앞 061-234-0234)' (Gwangju, Jeonnam University, North District Office, 061-234-0234).